

동성애 특권법 폐지 70만 서명운동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주법 중 우리의 가정, 사회, 학교와 교회를 어지럽히며 우리의 자녀들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악법이 있어 이를 시정 코자 이를 알리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합니다.

99년 10월 4일 가주 주지사의 서명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의 요약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AB26은 함께 사는 동성애자들을 정상부부로 인정하여 모든 법적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 ▶ AB537은 기주 내 국공립학교에서 동서애를 공식적으로 교육법규에 의무적으로 삽입하여 초등학교부터 이를 정상적인 삶의 표준 가르쳐야 합니다.
 - ▶ AB1001은 가주 내 직장과 고용, 집 임대에 있어서 동성애자를 차별할 경우 경찰의 수사와 더불어 5만불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법은 보이 스카우트, 각 크리스챤 사업, 선교기관 및 교회 부속 기관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AB1670은 동성애를 인권 보호 규정으로 삼고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차별이 증명될 경우 인종 차별, 성 차별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찰의 수사와 15만불 미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유사아이에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 하며, 비윤리적, 반인류적인 비행을 개인의 선택으로, 그리고 인권법으로 특권을 부여, 가정파괴와 인륜 파괴를 조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를 배울 경우, 동성애자의 사위, 며느리를 맞이할 날이 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법의 시행을 이번에 막지 않으면 진리는 상대적인 가치로 인정되어, 육체의 일들이 가속화 되고 심각한 인륜과 도덕성 파괴가 불 보듯 뻔하게 됩니다.

이에 이 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70만 서명운동을 범 카운티, 범 교포, 범 인종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 주류 사회에서 뜻 있는 이들이 이미 서명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만으로 안되는 상황이며, 우리만으로 안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 바른 길을 찾아 나섭시다. 우리를 이땅에 부르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자문하면서 미 주류사회와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주동성연애특권법폐지대책위원회 총재 임동선 목사

기주 동성연애특권법폐지대책위원회 조직(초안)

(이 상 267 명) ★성명은 가나다 순

70만 서명 토기사회

1. 자 격 : 케리포니아 거주 미 시민권자로써 소속 카운티에 유권자 등록이 된 자입니다.
 2. 기 간 : 2000년 1월 16일이나 정리를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을 행정미감으로합니다.
 3. 유권자 등록이 필요한 분들은 그간 유권자 등록을 안 하신 분, 최근 주소 변경자, 최근 투표에 참여 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4. 투표지등록 시인과 70만 서명표의 시인이 동일하어야 합니다.
 5. 시인을 받을 때는 한 용지에 동일한 카운티 사람의 시인만을 받아야 합니다.
 6. 1회 이상 중복하여 시인하시면 중복된 전체 시인이 무효화됩니다.

가주동성연애를권법폐지대책위원회 제2차 모임

- 안 건 : 가주동성연애 특권법 폐지 운동 (S.R.A.2000)의 조직보완과 확정 효과적인 캠페인 전략 수립
 - 대 상 : 가주동성연애 특권법폐지대책위원회 임원
 - 일 시 : 1999년 12월 15일 오전 11시 (수)
 - 장 소 : 동양선교교회 제2교육관 예배실

교회 323-466-1234, 424 N. Western Ave. LA)
샬롬센터 (Shalom Center for T.R.E.E. of Life)
2975 Wilshire Bl. #415 LA, CA. 90010
대표전화 : (213)380-3700 Fax(213)365-0048